

조계종 역경위 '불학총서' 3권 첫선

승가대 교재 보급... 한문교육 풍토개선 '일조'

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회(위원장 법성)의 첫 성과물인 '불학총서' 3권이 발간됐다. 역경위원회는 동국역경원등 한국불교 역경사업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승가교육 및 불교신행의 사상적 중심을 정립키 위해 승가교육교재를 우리말로 번역, 지방승가대학 학인들에게 배포하기로 하고 그 1차 사업으로 <아함경> <팔천송반야경> <석가여래행적송>(조계종출판사 刊)을 출간했다. 이번 '불학총서' 3권의 발간은 기존 역경사업의 계속 발전은 물론 지방승가대학의 한문 혼고학적 교육방법론, 참선·바라밀행과 유리된 사변적 교학연구의 풍토를 개선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동국역경원의 '한글대장경' 시리즈가 전문인력 부족과 재정적·시간적인 어려움으로 초벌번역작업에 그치고 있는 반면, 한 차원 높은 2차번역의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총서 제1권 <아함경>은 초기불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처님과 그의 가장 원초적 교설을 불교의 중심지표로 설정해 내기 위해 가장 먼저 번역됐다. 경전과 종파마다 각기 달라진 언



아 함 경 교리해석의 기준 초기경전 전집
팔천송 반야경 반야경의 원형·바라밀실천 제시
석가여래행적송 고려 부암무기선사 저술 첫 국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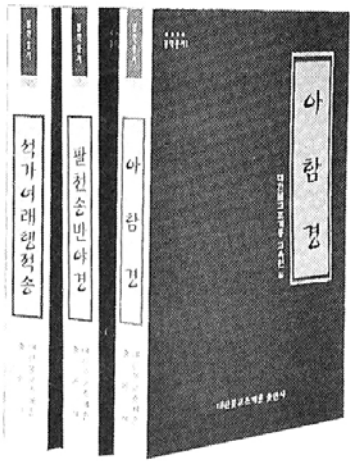
화엄·천태·선학 관련서등 계속 출간될 듯

어의 갈래와 한 종교로 규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섞일 수 없게 된 신행과 의례의 차이점에 통일성을 부여하는데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도에서이다.

제2권 <팔천송반야경>은 <반야경>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간직한 경이다. 먼저 <팔천송반야경>이 처음 성립된 뒤 <반야경>이 이만오천송반야, 십만송반야로 넓혀지고 깊어졌다는 것. <팔천송반야경>은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이 육바라밀의 실천을 제시하며, 바라밀의 실천은 끝내 일체지에 회향되고 중도실상에 귀착됨을 보여준다.

제3권 <석가여래행적송>은 고려 중승왕대 부암무기(浮庵無奇)선사의 저술. 석가모니불의 행적과 교설의 기본내용, 중국으로 법이 전승되어가는 과정과 정치세력에 의해 진행된 법난 등을 쓰고 있다. 부암무기선사는 이 책에서 중생과 시주에 은혜 같은 바라밀행과 전법행의 대결단을 하지 않는 한 불교교단의 새로운 변혁도 불법의 올바른 전승도 있을 수 없음을 설하고 있어 오늘날 승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.

<팔천송반야경>과 <석가여래행적송>은 특히 최초의 완역본이란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. 또 각권마다 30~40쪽 분량의 충분한 해제



명사추천

여보게, 저승갈때 뭘 가지고가지

오늘날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조용히 앉아 책을 읽기란 쉽지 않다. 더구나 종교관계 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. 나 자신도 한 기관을 운영하며 입장에서 부끄러운 애기지만 틈을 내어 독서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. 그런속에서 내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용산스님의 <여보게,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>(고려인 刊)라는 책이었다. 책 제목이 신선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평범한 생각에 주저없이 펼쳐 보게 되었다.

그런데 한장 한장을 넘기다 보니 어느새 공감이 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했다.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건만 이 당연한 진리를 망각한 채 마치 저승갈 때 모든 것을 다 가져갈 것만 같이 욕심만으로 달린다.

내 자신은 고고학이란 학문의 이름을 빌어 수



조 유 진 (국립민속박물관장)

탐욕의 늪 벗어나는 지혜 담겨 읽는사람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

많은 옛 무덤을 발굴조사해 왔다. 그러다 보니 죽은 자가 차지하고 있는 한 평의 땅도 못된다 것을 알게 되었다. 이와같이 사람이 죽으면 고작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책은 탐욕의 늪을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생각해 해준다.

3대 과부집의 장손으로 신학대학을 지원하려 했던 이 책의 저자는 <반야심경>을 통해 불교와 첫 인연을 맺게 된다. 그리고 그는 원효의 <대승기신론>에 감명을 받고 불교로 개종할 것을 결심하여 마침내 <육조단경>과 <보조어록>을 읽고서 집안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산한다. 그는 고통받는 지육중생과 육도의 모든 중생이 단 한명이라도 성불하지 못하면 자신도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력에 감동하여, 참선의 수양보다는 <지장경>을 통해

"경허선사 일대기 소설로 본다"

윤청광씨 '착한일 많이 하게...' 펴내

근세 한국불교를 중흥시킨 경허선사(1849~1912)의 일대기를 다룬 구도소설 <착한 일 많이 하게 그대가 부처일세>(언어문화사 刊)가 나왔다. 작가 윤청광씨(방송위원회 심의위원)가 불교방송의 간판으로 알려진 '고승열전 시리즈'를 소설화한 14번째 책.

<착한 일...>은 정치·사회적 격변이 심했던 근대사를 산 경허선사의 결집없는 대자유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 준다. 작가의 발심(發心)을 일으키게 하는 전기소설이기도 하다. 또한 재미있는 일화를 중심으로 서술해 일반인들도 경허라는 한 인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사상을 접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.



경허선사

한국 현대불교의 선지식인 만공 함암 해일스님을 키워 낸 경허스님은 중국의 조주·임제, 신라의 원효, 대안스님에 비견되는 대선사로서 한국불교의 선종 진작과 불교 대중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.

◆금주의 베스트불서 10

순위	도서명	저·편자	출판사
1	삶은 풀가 아니다	혜 원	여시아문
2	생광속의 기도법	일 타	효 립
3	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	현대불교신문	여시아문
4	불교입문	조계종교원	조계 종
5	그 마음을 바쳐라	김 재 응	용 화
6	49재 공덕과 의미	편 집 부	이 바 지
7	무소유	법 정	범 우 사
8	참선교육	현 답	승 선
9	저거는 맨날 고기볶고 4	우 학	흥은인연
10	영원한 자유의 길	성 철	장 경 각

구입문의: (02)737-0695

연관스님 '금강경 간정기' 번역 출간

직·의역 적절... 금강경 해설 새지평 열어

다. 연관스님(실상사 화엄학림 학장)이 번역한 <금강경간정기(金剛經間定記)>(선우도량 刊)가 그것이다.

<금강경간정기>는 당나라 규봉종일 스님의 <금강경간정기>에 대한 주석서로 송나라 장수자 선(長水子辯: 965~1038) 스님이 지은 책. 수백종에 달하는 <금강경> 주석서 가운데 중도(中道)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려내고 잘못된 부분을 주려낸 <금강경간정기>에 다시 자신스님이 어지러운 부분을 잘라내고 체계를 지워 펴낸 주해서다. 역자인 연관스님은 여기에 덧붙여 연달유일(蓮華有一: 1720~1799) 스님의 <금강경오가해 사기(私記)>중 '찬요'에 관한 것만을 뽑아 번역, 주(注)를 붙였다.

<금강경간정기>에서 연관스님은 경문(經文)과 소문(疏文)은 번역문에 원문을 붙였고 기문(記文)은 번역만 하였다. 번역은 직역과 의역을 고루 취했다.

선우도량 출판부, 4·6배판 524쪽, 2만5천원.

법화사상 차차씩 옮김

하라가와 아키라 동경대 명예교수 등 <법화경>을 연구하는 아홉명의 학자들이 분야를 나눠 세밀하게 연구분석한 법화사상서. 법화사상을 학술적으로 연구하던 일반인들에게 법화사상의 전체

종교적 실천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<법화경>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. 또 <법화경>의 불타관, 핵심사상인 일승과 삼승 등을 비롯한

와 제 의 책

법화사상

일본학자 9명 법화사상 심층분석

적인 움직임을 알려주는 개설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. 역자는 차차씨(동국대 강사). 현대적 연구방법인 문헌사학에 입각, <법화경>의 성립 내지 배경을 조망하면서 인도·중국의 <법화경> 주석가들의 사상적 특징과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. 법화사상의 합리적인 이해와 실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. <여래 8천원.>

가장 받아보고 싶은 사보- '해인' 인상깊은 사보- '불일회보' '관음' 재미있는 사보- '자비동산' '청암'

책방 여시아문, '사보전시회' 불자추천 집계

불자들이 가장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보(寺報)는 해인사의 <해인>지인 것으로 나타났다. 또 가장 인상깊은 사보는 송광사 사보인 <불일회보>와 광주 관음사의 <관음>, 가장 재미있는 사보는 강릉 자비원의 <자비동산>, 김천 청암사의 <청암>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.

이같은 결과는 본사 부설 책방 여시아문이 개업 2주년 기념으로 지난 10월23일~11월3일까지 국내 최초로 연 '사보 전시회'에 참여한 불자들의 추천을 받아 집계한 것.

지난 82년 창간해 통권 176호를 내고 있는 <해인>은 산뜻한 편집과 진솔하면서도 수준 높은 기사가 불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. 또 <불일회보>는 1면의 선화(禪畵)와 시원한 편집이, <관음>은 표지 디자인이 인상깊게 느껴진 것으로 보인다. <자비동산>은 어린이잡지처럼 다양한 내용이, <청암>은 비구니 사찰만의 독특한 이미지가 눈길을 끈 것으로 평가됐다. <재>

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

조계종 종정 율하 스님을 비롯한 크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

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

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,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

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

오직 수행만을 '일 없음의 일'로 삼는 우리들의 크스님.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.

45년 간 살하시고도 '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(無說一字)'는 그 정신을 잃지 않고는 크스님들의 '말'에 다가갈 수 없다. '말 없음의 말'인 까닭이다.

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크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'현대불교'에서 기획한 '지상법석'을 엮은 것이다. 어떻게든 깨닫게 하려는 크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늘퍼런 일갈로,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.

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.

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.

여시아문은 '듣는 바,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'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. 여시아문 서문지 종료구 건지동 110-33 전화 (02)737-0695 팩스 (02)737-0696

현대불교신문사 역음 신국판 342쪽 / 값 7,000원